



本壽宮美術館藏  
 緒(二六六八)의  
 帖畫、障畫(이  
 中)의 自畫像도  
 있었다(等 數十點을  
 拜觀한 일이 있다.  
 이에 紹介하는 旋車  
 圖는 中 「尹氏家  
 寶」로서 傳來되어  
 總四二葉의 畫帖(세

로 三三·五cm 가로 二九cm) 中에 들어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는 勿論 餘他의 遺作中에서도 가장 生氣있고 現實感을 풍기는 佳作이었다. 어느 製陶工房의(或은 鑪器工房으로도 짐작되는데 이는 器의 倒置接着이 難點인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한다) 한局面을 그린 絹本白畫(세로 三三·五cm 가로 二〇cm)로서 能히 보기 어려운 지나가버린 當代風俗의 一面을 提示한다. 이러한 欲求에서인지 恭齊는 特히 이 그림에 만은 右上部에 마치 註를 달듯이 「恭齊彦戲作旋車圖」라고 簡單히 畫題를 墨書하였다. 斜側面을 보이며 對座한 二人의 工匠사이 橫架한 「旋車」는 허리통에 감긴 끈의 兩端을 번갈아 밟아당기므로서 回轉또는 反轉되는 것 같으며 한 쪽끝에 매달린 器皿은 相對方이 왼쪽 무릎위에 두손으로 끈아친 지렛대 모양의 대칼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있는 듯한데 혹은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筆者의 見聞으로서 이와 같은 製器過程은 처음이나 당바닥에 곧게 깔린 흙부스러기와 大小器皿이 겹쳐져 있는 점으로 짐작하건대 或은 乾燥에 先行하는 整形作業인지도 모르겠다. 끈을 밟는 양쪽발과 맞은편 人物의 양쪽다리의 놓임새에는 切實한 動態가 감돌며, 上體의 가늠과 늘스구레하며 微笑하는 顔面表情에는 이 工房作業過程의 機微가 如實히 풍겨지고 있다. 質朴하게 그려진 旋車, 工具, 跣상, 걸터앉은 人物 등의 按配는 透視에 不自然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들 器具의 單純한 物理的 操作과 함께 圓의 藝術이 生産되는 手工業의 淳朴한 情趣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兩人的 고의 장백이와 頭巾은 唐衣의 그

것을 彷彿케 하며 後代 檀園이나 蕙園의 風俗圖에서처럼 鄉土色으로 미처 풀리지 못한 觀念이 있다. 아무튼 恭齊의 鄉里에는 이와 같은 製器具도 있었던가 하는 興味와 疑問은 아직 풀지 못했으나 이 旋車圖를 비롯 많은 習作中에는 이와 비슷한 鄉土感覺이 깃든 佳作들이 있어서 院風一邊倒로 생각되던 恭齊의 畫境及至는 畫格도 再吟味 評價함이 어떨까 하는 希望을 갖게 한다.

### 貞昭公主墓出土 粉青砂器草花文四耳壺

鄭 良 謨

德壽宮美術館收藏品中에 表題의 항아리가 얼마로부터 本人의 注意를 끌여 온바 좀더 慎重을 期하여 이 資料를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었으나 當初에 보고 느낀대로를 紹介하여 于先 先輩, 同學의 叱正을 얻으려 한다.

粉青砂器印花文의 發生이나 發展을 考究하는데 官司銘이 들어있는 器皿은 매우 貴重한 資料가 되어 있으며 그외에도 다른 銘文이나 一括遺物이 있어서 印花文粉青砂器以外에 있어서도 그 研究에 많은 進捗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앞으로 胎壺가 기지는 粉青砂器와 白磁의 研究에 가지는 比重이 크리라 생각된다. 粉青砂器로 이제까지世上에 알려진 胎壺로는 德壽宮美術館所藏粉青砂器印花文胎



壺(外壺及內壺蓋)梨花女大博物館所藏粉青砂器印花文胎壺(內·外壺)、同博物館所藏慶州長興庫銘粉青砂器印花文胎壺①(內壺?)와 李洪根氏所藏 陝川 長興庫銘胎壺(內壺) 등을 들 수 있으나 比較的 많은 白磁胎壺②에 서와 같이 誌石(胎誌)을 伴出한 例가 없고 다만 前記 梨花女大收藏인 慶州長興庫銘胎壺와 伴出했다고 傳하여지는 白磁壺、粉青砂器長興庫銘 牒各一個가 있을 뿐으로 年代推定의 貴重한 資料로서의 價値를 많이 喪失하고 있다고 보겠다.

여기 紹介하려는 胎缸의 內壺라 推測되는 粉青砂器象嵌文四耳壺는 胎土가 精選硬質로 細裏에 비친 色은 淡鼠色의 良質이며 帶淡靑淡鼠의 透明하고 氷裂이 있는 釉藥이 比較的 얇게 입혀져서 粉青砂器로서 特性은 지니고 있으면서도 硬固하고 좀 찬듯한 느낌을 준다. 文樣은 象嵌의 手法을 주로 印花를 약간 곁들여 壺의 最下인 바로 口緣에 重蓮瓣文帶를 그리고 上部인 口緣 바로 아래 肩部엔 좁은 宛字文帶를 이 兩文帶帶의 中間인 넓은 胴部인 主文樣帶엔 草花、蓮瓣、菊花文 등을 自由奔放하게 驅使配置하여 切然한 調和를 이루고 있다. 이 壺는 그 文樣을 나타낸 手法이 印花가 아닌 麗朝象嵌手法을 그대로 繼承한 것이며 形態에 있어서 도우리가 알고 있는 不過少數의 胎壺와 좀 다르다. 이제까지 알려진 數例는 口緣部가 一般的으로 李朝初期항아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약간 말려 外反되고 肩部가 口緣에서 갑자기 넓어져 最大幅을 이루고 밑으로 내려 갈수록 漸次로 좁아져서 그 形態가 上寬下促形을 이루고 있으며 마치 독의 밑과 같이 一定한 굵이 없이 밑이 편편하거나 안으로 바닷을 파내어 그대로 굵을 만들었으나 이 壺에서는 口緣部가 알음막하게 바로 서있고 肩部가 넓지 아니하고 동그스름하게 퍼져내려가 胴部가若干 불룩하나 筒狀에 가까우며 下部도 口緣部에서와 같이 胴部에서 차츰 동그스름하게 오므러가다 굵이 造出되어 있다. 即 口緣과 胴部、 굵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胎缸 보다 다른 形態를 하고 있으며 굵은 所謂竹節 굵이다. 또 하나 고리의 役割을 하였을 四耳③는 마치 문배목과 같이 박어 끼여 안에서 아무렇게나 아무려 정리를 해 놓았다.

德壽宮美術館遺物原帳에 보면 이 四耳壺는 表題와 같이 貞昭公主墓出

土壺로 되어 있으나 本人은 여기에 若干의 異意를 처음부터 품고 있었다. 原帳에 「(前略) 一九三九年(西紀로 本人이 고친 것) 五月二十日 禮式課에서 引繼(中略) 世宗第一女貞昭公主墓出土永樂二十二年埋藏(世宗六年) 高陽郡碧蹄面大慈里出土」라 되어 있어 이로써 보면 貞昭公主墓出土라 보겠지만 지금 뚜정은 없으나 胎缸이 가지는 特性(형태)을 지니고 있으며 當初 禮式課에서 또는 原帳을 記錄할 때 잘못 알고 胎墓出土란 것을 墓出土로 記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永樂二十二年(一四二四)은 바로 貞昭公主의 卒年④으로 記錄者가 公主의 歿年을 찾아 記錄한 것이거나 또는 이 壺가 發掘될 때 胎誌가 있었으나 紛失되어 이 壺만이 남았음으로 거기에 있었던 貞昭公主란 것과 永樂(一九三九)이 原帳을 만들 때에 구태어 中國의 年號를 쓸 理由가 없다고 생각된다) 二十二年埋藏하였다는 어떤 記錄을 根據로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出土된 地點을 記錄하였는데 이 地點은 貞昭公主의 墓가 있는 高陽郡元堂面元堂里⑤와 다르다는 點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면 이 壺는 世宗大王의 第一女貞昭公主의 胎壺로 公主의 卒年이 世宗六年(一四二四)이요 그때 年十三이었으므로 그의 生年인 太宗十二年(一四二二)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되며 粉青砂器象嵌文器皿 研究에 年代가 確實한 資料하나를 더 얻게 되는 셈이다. 口徑 八·二cm 高一二·二cm 底徑 七·八cm

註

① 特히 王家의 胎壺는 대체로 二重으로 되어 있으나 얼마전 某處에서 發掘되어 市內某商人의 손에 들어간 白磁의 胎壺는 內壺뿐이 었으나 그 形態나 質이 大端히 優秀하였으나 外壺는 없고 一插遺物(誌石)도 없었다고 傳한다.

② 白磁胎壺는 그 例가 많으며 大體로 誌石을 同伴하며 內外의 二重 壺로 되어 있다. 例、國立博物館所藏白磁胎壺(內外壺、附胎誌) 同 白磁胎壺(內外壺、附誌石)을 비롯하여 李洪根氏所藏白磁胎壺(內外壺、附誌石) 梨花女大博物館所藏白磁胎壺(內外壺、附誌石) 金元全氏所藏胎壺(內外壺) 市內 某處와 某人에 數十의 白磁胎壺가 있다고 傳하여 몇개는 本人이 보았으나 나머지는 보지 못하였다. 粉

③ 靑砂器胎壺에 있어서 梨大所藏의 印花文壺는 外壺는 다른 白磁胎壺보다 조금 평평하게 넓은 內壺는 그 형태가 전연 同一하다. 더수공미술관 소장의 無其胎壺의 一例를 除外하고 이제까지 알려진 다른 粉靑砂器나 白磁胎紅에 있어서 是 배목같이 안까지 미치지 끼워 박지 아니하고 길쭉하게 또는 좁은 근듯 세모에 구멍을 뚫은 넓적한것을 모든 향아리 肩部에 걸므로 붙여 아담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前者의 手法도 같은 德壽宮所藏의 逸名粉靑砂器印花文胎壺와 後考로 미루면 粉靑砂器기 胎文胎壺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世宗實錄卷二四、世宗六年二月庚申條。

⑤ 德壽宮美術館原帳의 類例를 보면 出所未詳인것은 반드시 「傳」字를 記入하고 不明인것은 勿論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이 原帳엔 分明히 表題(粉靑砂器는 本人이 고쳐 쓴것)와 같이 記錄된 것을 보면 發掘當時 어떤 根據品이 있었는것이라 생각된다.

⑥ 現在 西三陵城內이며 行政區域은 一九三九年에도 現在와 같이 高陽郡元堂面과 碧蹄面이 區分되어 있었음.

## 桐華寺의 在銘香爐 二座

鄭 明 鎬

羅代 五岳의 하나인 八公山에는 많은 遺物遺蹟이 散在하고 있다. 一九六三年 七月末 桐華寺를 찾을 機會가 있어 寺寶中에서 在銘香爐 二座를 注目하였음으로 紹介하여 둔다.

一、高杯型 在銘銀入絲 香壇

典型的인 高杯型 香爐로서 全表面에 銀入絲가 있으며 身部和 臺座部로 兩分되어 上下를 柄釘이 아닌 鑄接으로 固定시키고 있다. 形態로서는 從來에 紹介된(註) 香爐보다는 鈍厚하면서 比率이 均整하며 優麗하다. 甬形의 爐身에는 廣幅의 口緣이 있고 身部下부에 받침形의 段

과 돌딩과 낮은 突起 받침이 있다.

臺部로서는 副緣形의 一段 받침과 圓帶 밑에 柱形이 圓盤型으로 緩慢히 擴大되어 曲形의 基部를 이루었다. 그리고 左右兩側에 釘孔이 뚫려 있음으로 보아 固定되었던것 같다. 入絲는 保存이 良好한데 口緣에는 寶相唐草와 雲文과 雷文이 둘러 있다. 身部에는 卍字形 雷文이 全表面에 메꾸었으며 그 밑에 蓮花重瓣文과 如意頭文 등이 있다. 臺座에는 월부터 唐草文 蓮花文 如意頭文이 있으며 圓盤上面에는 寶相唐草가 있고 다시 그 밑에 蓮唐草와 文으로 裝飾되었다.

銘文은 身部口緣裏面에 楷書로 陰刻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順治十年癸巳二月大丘八公山桐華寺上 銀絲大施主兼自匠司梁尹龍兩主化主禪宗大禪師道悟一造佛法僧三坐』

이 銘文으로서 年代(一六五三年 朝鮮孝宗四年)와 供納處가 確實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入絲와 文樣의 時代의 特色을 살필수가 있다.

二、鼎型 在銘陽刻文 香爐

三獸足이 달린 鼎型 香爐로서 器表 全面에 陽刻彫文이 있다. 口緣

